

Market Index / 11일

코스피지수 ▲ 5354.49 +52.80	코스닥지수 ▼ 1114.87 -0.33	유가(WTI, 달러) ▼ 63.96 -0.40	환율(원) 1USD 100원 1478.32 965.49	팔때 1427.48 932.29	1EUR 1CNY 1765.57 220.75	살때 1696.69 199.73
------------------------	-----------------------	---------------------------	--------------------------------	-------------------	--------------------------	-------------------

취업자 늘었지만 40대 고용 부진은 지속

■ 제주도 1월 고용동향

고용률·실업률 동반 상승
15~29세 청년층은 증가세
40대 1년전보다 3000명 ↓
임시근로자는 1만명 늘어

제주지역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40대 고용 부진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

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40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000명(2.1%) 증가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39만7000명) 이후 한 달 만에 4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70.0%로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7000명(6.8%) 늘었고, 실업률도 4.2%로 1.6%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4000명, 30.5%), 농림어업(2000명, 4.1%), 도소매·숙박·음식점업(2000명, 1.8%)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으나, 전기·

운수·통신·금융업(-1000명, -1.7%)은 감소했다.

고용 형태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27만9000명으로 9000명(3.1%) 증가한 가운데, 임시근로자가 6만9000명으로 1만명(16.2%)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커졌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만4000명으로 3000명(-19.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온도차를 보였다. 15~29세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30~40대만 감소했다.

1월 제주지역 15~29세 취업자 수는 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14.3%) 증가하며 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별 취업자 규모는 2024년 5월(4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 30~39세는 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감소(-0.8%) 했다. 40~49세도 9만명으로 3000명 감소(-3.6%)하며 1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50~59세는 10만명으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60세 이상은 10만3000명 전년 동월 대비 6000명(6.5%) 증가했는데, 월별로는 지난해 12월(9만6000명)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에 진입했다. 오은지기자

원/달러 환율 하락… 1450.1원
엔화 강세·中 위안화는 절상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 떨어졌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9.0원 내린 1450.1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0.3원 내린 1458.8원에서 출발해 1459.1원까지 올랐다가 1449.9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이달 4일부터 사흘 연속 상승했다가 3거래일째 하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35% 내린 96.553이었다.

최근 아시아 통화 상승 재료가 이어졌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이날 위안/달러 거래 기준 환율을 전장보다 0.002위안(0.03%) 내린 6.9438 위안으로 고시했다.

엔/달러 환율은 1.51% 내린 153.03엔이었다.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7.5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8.54원 상승했다.

연합뉴스



출어 준비하는 어민들 11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들이 출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강희만기자

"지방 중소기업 가장 큰 애로는 인력 확보"

중기중앙회, 전국 772곳 대상 조사 결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수도권 중소기업과 경영 환경에 격차를 크게 느끼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63.4%는 수도권 중소기업과 경영 환경과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48.3%가 비수도권 기업과 경영 환경 격차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해, 인식차가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79.6%)과 대

구·경북권(70.7%)이 격차를 크게 느낀다는 답변 비중이 높았다.

분야별로는 비수도권 기업의 66.2%가 '인력 확보'에서 경영 환경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고,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가 51.2%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기업과 인력 확보에서 격차를 느낀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고, 인프라는 67.4%로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맷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두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두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작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시키, 레드한라봉, 흉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사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묘목

▲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 천혜향 2년생 3년생

▲ 궁 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최고경력·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증사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맷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본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처로변)

증사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봉
- 미니론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기 조절 가능
유라조생·카라향·레드향·황금향·천혜향·한라봉·하례조생·원터프린스·하귤·오하라베니·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체들과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및 품종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으로 생산, 축적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증사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